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지주촌 뇌건강치과 시연구소 대표

신개념 뇌건강 치과 XXV

-창조적 파괴(1) 제제시온과 아시아문화전당

겨내고 전사들의 합창 속에서 환희의 포옹을 나누는 3면 '은 세계에 보내는 입맞춤'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제제시온의 지하 전시실은 단지 길작 하나를 남은 곳이 아니다. 작품과 공간, 도시의 역사와 예술사의 맥락을 끊임없이 철학화하고 현재화해 온 굳건한 문화적 생태계 덕분에 세계인의 순례지가 됐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떠올린다. 우규승 건축가의 '빛의 숲' 개념 아래 ACC는 주요 시설들을 거대한 지하 광장으로 배치했다. 혹자는 눈에 띄는, 거대하고 높은 랜드마크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만, 이는 지하의 대지(大地)가 품고 있는 심오한 철학적 힘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읽어야 한다.

제제시온의 지하 전시실이 낡은 예술을 파괴하고 인류의 화합을 잉태했듯, ACC의 지하 공간 역시 광주의 아픈 역사로 아시아의 평화를 잉태하고 창조할 위대한 모성적 자궁이다. 관람객이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거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건물에서 물리나 내지를 딛고 우러러볼 때, 마천루가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인간적 성찰과 숭고한 연대를 경험하게 된다.

철학자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의 형제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고 역설했다. 비현실적인 높이나 초월적 허상을 탐하기보다 굳건한 대지에 뿌리를 내리라는 준엄한 선언이다. 지하의 대지를 딛는 것은 가상의 세계를 좇는 대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치열한 현실과 고통을 온전히 긍정하라는 '운명애(Amor Fati)'와 '초인'의 철학을 체화하는 고귀한 행위다.

물론 제제시온과 ACC를 평면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두 공간의 역사와 도시의 맥락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제시온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한 공간이 어떻게 낡은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웠는가에 대한 통찰이다.

그렇다면 지금 ACC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시대정신의 서사와 핵심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광주에는 5·18이라는 인류 보편의 숭고한 서사가 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그 뼈아픈 기억을 세계가 공감할 문화적 언어로 기록하게 확장했다. 그러나 이 성취를 노벨상 수상이라는 일회성 체험이나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 소비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주의 목적인 서사는 인류애를 향한 공공의 성찰과 실천이어야 한다.

따라서 ACC는 전시와 공연 기획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빛과 어둠, 목소리와 침묵, 폭력과 치유, 증오와 사랑을 융합하여 인류 평화의 사유를 끌어내는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연애가 전 세계인들이 빛의 숲 지하 광장에 걸어 들어섰을 때, 아시아 속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 속 아시아의 영혼으로 인류의 평화와 휴머니즘을 깨우는 위대한 걸작, 곧 'ACC의 21C 판 베토벤 프리즈'와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직 광주의 대지 깊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압도적 예술이 창조되어 존재할 때, 아시아문화전당은 비로소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또 다른 세계적 문화의 성지로 부활할 것이다.

社說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대만큼이나 현장의 혼란과 시민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려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준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보시스템, 조직, 예산 등 핵심과제 추진 상황과 재정,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특별시금고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시·도는 기존 약정 기간이 남은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별도로 운영하다 내년부터 합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산시스템 등 물리적 여건을 비롯해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합 시점에 맞춰 일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광주시는 1급고 광주은행, 2급고 농협 체제로 약정 기간은 2028년 말이다. 전남도는 1급고 농협, 2급고 광주은행으로 2028년 말까지다. 1급고는 일반회계와 주요 자금, 2급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는다.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시 첫 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전까지는 기존 금고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까지 1·2급고를 한시적으로 위수탁할 방침이다. 광역 행정통합에 따라 금고 문제 또한 만

만찮다. 대표 현안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예치금 규모만 2배 이상이다. 중앙정부가 해마다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약속한 바 있다. 상징성도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실무 협의에서 임시적인 1·2급고 배분을 둘러싸고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7월이면 전국 제1호 특별시가 탄생한다. 당초대로 하반기에는 2027년부터 예산을 관리할 차기 금고를 낙점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문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금융권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평가 항목도 특별시의 위상과 삶의 질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은행 입찰에서는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수많은 고객을 유지하는 등 메리트가 상당하다. 수신 일자율을 포함해 모든 정보가 낱알이 공개돼야 한다. 지나친 과열을 막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여수산단 등 유화산업 구조 개편 반드시 성공해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절차를 완화하고, 기업 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 교환에 관한 조정거래법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기술료 감면, 고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와 유화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 의료·생활품 등 주요 품목에 걸쳐 유통상황을 전방위 점검하고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중이다. 국민 생활 전반과 물가 부문의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충남 서산의 대산산단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른 첫 사례다. 110만톤 롯데케미칼 NCC 설비 가동 중단을 통한 공급

과잉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금융·세제·원가 등 231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3월에는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구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공장을 분할해 여천NC(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동발 글로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앞선데 달렸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숨통을 터야 할 마지막 기회다. 보다 촘촘하게 관리돼야 한다. 정부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충격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여수 일원은 장기 불황으로 산업 및 고용위기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 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치칼럼



김용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전남광주특별시, 기초의회의 새로운 관점과 역할

시 산하 시군구는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 전남의 일부 군은 3면이 되지 않지 만, 광주의 일부 자치구는 42만명이나 된다. 인구수만 보면 1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향후 통합특별시는 27개 시군구가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의 감시장·약의회 구조이지만 주민의 뜻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 의회가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행정의 주도권을 쥐는 '의회중심형' 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둘째, 기초의회는 광역이 흉내 낼 수 없는 '주민자치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가장 강력한 존재 명분은 광역 단위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주민 참여의 집'에 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기초의회의 차별화된 핵심 과업이다. 광역의회는 수백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기에 마을 단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 거버넌스 지원센터'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마을 의제가 실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가교가 돼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민간의 자율성으로 움직인다면, 기초의회는 그 자율성이 행정적

결과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보증하고 지원하는 '정치적 엔진'이 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의회는 촘촘하고 단단한 '생활 안전망'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 복지, 교육,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3대 축이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일률적인 복지 서비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초의회는 우리 동네만의 특화된 안전망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예컨대, 독거노인 돌봄이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 골목길 치안 등은 광역 단위의 거시 정책보다 기초 단위의 세심한 조치가 훨씬 효과적이다. 기초의회는 '동네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점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골목 상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마을 단위의 환경 감시와 쓰레기 처리 문제 역시 기초의회가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기초의회의 종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행정이 비대해질수록 이를 견제할 풀뿌리 정치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회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권 안에서 완성해주는 파트너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그것에 기초의회의 생활 밀착형 기능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담아낼 것인가"이다. 골목길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전남광주특별시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국민 안전의 날'은 2014년 4월16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기억식에 직접 참석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 가치를 뼈저리게 일깨워줬고 제도와 규제만으로

'국민 안전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관심과 책임이 필수적임을 다시 깨닫게 됐다.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나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는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점검과 관련 영상 교육, 필요한 경우 예방센터 방문 등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수칙을 인지하고 있어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김형호·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과본」

-서윤후

좋은이야기를 꿈꾸게 만드는 나쁜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쓸 수도 있을까 - 출처 : 『나쁜게 눈부시기』, 문학과지성사, 2025.

사가 된 이야기들이 파괴(破果)가 되어 가득 널려있으니, 성공 비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멈출 수 있을까.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꿈은 대나무 같아서 마디마디가 텅 비고서도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있다. 고쳐 쓰고 또 고쳐 쓸 수 있다.

그걸 '형극'이나 '천형'이라고 부르더라도 멈출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와 유일한 형벌은 동명동체(同名同體)여서 성공이 곧 실패고, 실패가 곧 성공이다. 생을 이어가는 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

'나쁜 이야기'가 되고만 이야기의 비명(碑銘)을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건너오는 비명을 들으며 다시 쓴다. 시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천세진 시인·비명가/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예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로권 15,000원 1부 800원